



치사랑, 그 진정한 의미

양승연/치사랑 도덕실천운동 본부장

요 즘 짐승보다 못한 사람들이 세상 구석 구석에서 보여지고 있다. 사람이라면 옳고 그름을 구별할 줄 알아야 하는데 사람의 탈을 쓰고 비인간적인 만행을 저지르고 있는 것이다.

시각장애를 지닌데다 중풍을 앓고 있던 늙은 아버지를 폐가에 방치해 죽음에 이르게 한 사건, 팔십 노모를 부양하는 문제로 형제간에 갈등을 빚던 큰아들이 노모와 동반 자살한 사건, 그리고 며칠 전 자식들에게 부담주기 싫다며 노부부가 자살한 사건은 세상에 충격과 안타까움을 던져 주었다.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되는 일들이 벌어진 것이다.

우리가 어떻게 세상에 있게 되었고, 어떻게 키워졌는가? 부모는 자식을 키울 때 하나하나 계산하면서, 보상받기 위해서 키우지 않는다. 무조건 사랑으로 베풀고 사랑을 준다. 자신을 희생해서라도 자식이 잘 된다면 나아 어떻게 되든 무슨 상관이었겠냐는 것이 우리 부모의 마음이며, 부모는 이런 마음으로 우리를 지금까지 키워 주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그런데, 지금 과연 우리들은 부모에게 어떻게 하고 있는가? 부모를 모실 때 자신의 자식을 키우는 마음으로 무조건 사랑으로 받들어 모시는가? 그러기는 커녕 서로 형제간에 눈치를 보며 자신의 이익을 먼저 계산하고 부모 모시기를 꺼려하고 심지어는 형제간에 우애마저 깨뜨리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한다.

그러나, 자식된 도리로써 부모에게 효를 행하

는 것은 필수 조건이 아니겠는가! 부모는 자식을 위해 희생하려 하는데 자식은 왜 부모를 위해 봉사하려 하지 않는가! 부모에게 우리는 자식된 도리를 다 해야 한다.

오늘날 우리가 이와 같이 잘 사는 것은 부모님의 은덕이다. 자고로 부모님은 눈에 보이는 하늘이라고 했다. 그러한 부모님이, 사회의 어른이, 직장의 선배들이 존경받는 사회, 윤리 도덕이 잘 지켜지는 사회가 만들어져야 한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선과 양심대로 살고 법과 질서를 지키고, 참고 양보하는 생활을 해야하는데, 바로 치사랑 실천 생활이 선과 양심대로 살고 법과 질서를 지키는 길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아무리 엄한 법령을 만들고 강제적으로 지키라고 해도 도덕사회는 세워질 수 없다.

사람이 사람다워질 때 올바른 사회가 되는 것이다. 사람이 사람다워질 수 있는 그 첫째가 바로 치사랑 실천인 것이다.

그렇다면 치사랑이란 무엇인가? 치사랑은 내리사랑의 반대말이다. 치사랑은 호흡법과 같다. 한 번 들이쉬 숨은 한 번 내쉬어야 하듯, 부모에게 받은 내리사랑을 치사랑으로 돌려드려야 하는 것이다. 이것이 순리이다.

생명의 은인인 부모에게 효는 못할 망정 지금처럼 이래서는 안 된다. 부모에게 받은 무조건적인 사랑을 자식된 도리로써 치사랑으로 되돌려드려 부모에게 자식의 의무를 다할 때, 자식은 행복이 넘치는 화목한 가정과 자신의 성공을 보장받을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PPFK

